

만나요 다시 그리고 라(나)누어요

2020 경기아트프로젝트
《흰 밤 검은 낮》 전시연계 이벤트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모든 이들을 위한 컬러링 프로그램입니다.
하인두 작가의 〈만다라〉 컬러링 작업을 통해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보아요!

#경기도미술관 #경기아트프로젝트 #흰밤검은낮 #하인두 #만다라챌린지

2020.01.21 - 2020.02.07

하인두

작가 하인두 (1930~1989)는 격동의 해방 공간과 한국전쟁 시기에 청년기를 보낸 전후 1세대 작가로 김창렬, 박서보와 함께 1957년 현대미술가협회를 창립하고 1962년 악떡엘회의 창립과 전시를 이끈 한국 앵포르멜 운동의 주역입니다.

그의 대표작인 〈만다라〉, 〈혼불〉 시리즈는 한국 현대 화단에서 ‘생명에의 외경’ 과 불교적 해탈의 의미를 추상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인두 〈만다라〉, 1982, 캔버스에 유채
가나문화재단 소장
Ha Indoo, Mandala, 1982, oil on canvas
Courtesy GANA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하인두 〈만다라〉

하인두 작가의 〈만다라〉 연작은 불교의 선종을 정신과 치료에 도입한 김중해 의사와의 교류에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불교의 만다라조성이 자아형성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를 치료법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인두 작가는 여러개의 고리들이 열을 지어 퍼져나가는 이 도상을 무의식의 영역에 존재하는 인간 덕목을 끌어내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마치 고통속에 몸부림치는 사람의 모습같기도 한 그의 만다라 작품들은 한 생명으로써 전력을 다해 살아가고자 했던 전후세대를 대표해 살아남은 자들을 위무하고 생의 의미를 복돋고자 합니다.

만다라 (Mandala)

본질(원)과 변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만다라는 우주의 공간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불교에서는 신이 거주하는 장소, 우주 법계가 망라된 물화를 의미한다. 만다라를 조성하거나 감상하는 과정이 내면의 영성에 다가가는 효과를 낸다고 하여 현대심리학에서 마음치료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전시연계 이벤트 - 만다라 챌린지

만나요 다시 그리고 라(나)누어요

장소

경기도 미술관 기획전시실

일시

2021.01.21.(목).~2021.02.07.(일)

이벤트 참여방법

미술관에 방문해 컬러링한 작품과 하인두 작품을 한 화면에 찍어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경기아트프로젝트 #경기도미술관 #흰밤검은낮 #하인두만다라 #만다라챌린지

*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컬러링 도안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미술관 기획전시실 《흰 밤 검은 낮》전의 하인두 작가 <만다라> 작품 앞에서 만다라 컬러링 작업을 해볼수 있습니다.

경기도 미술관 2020 경기아트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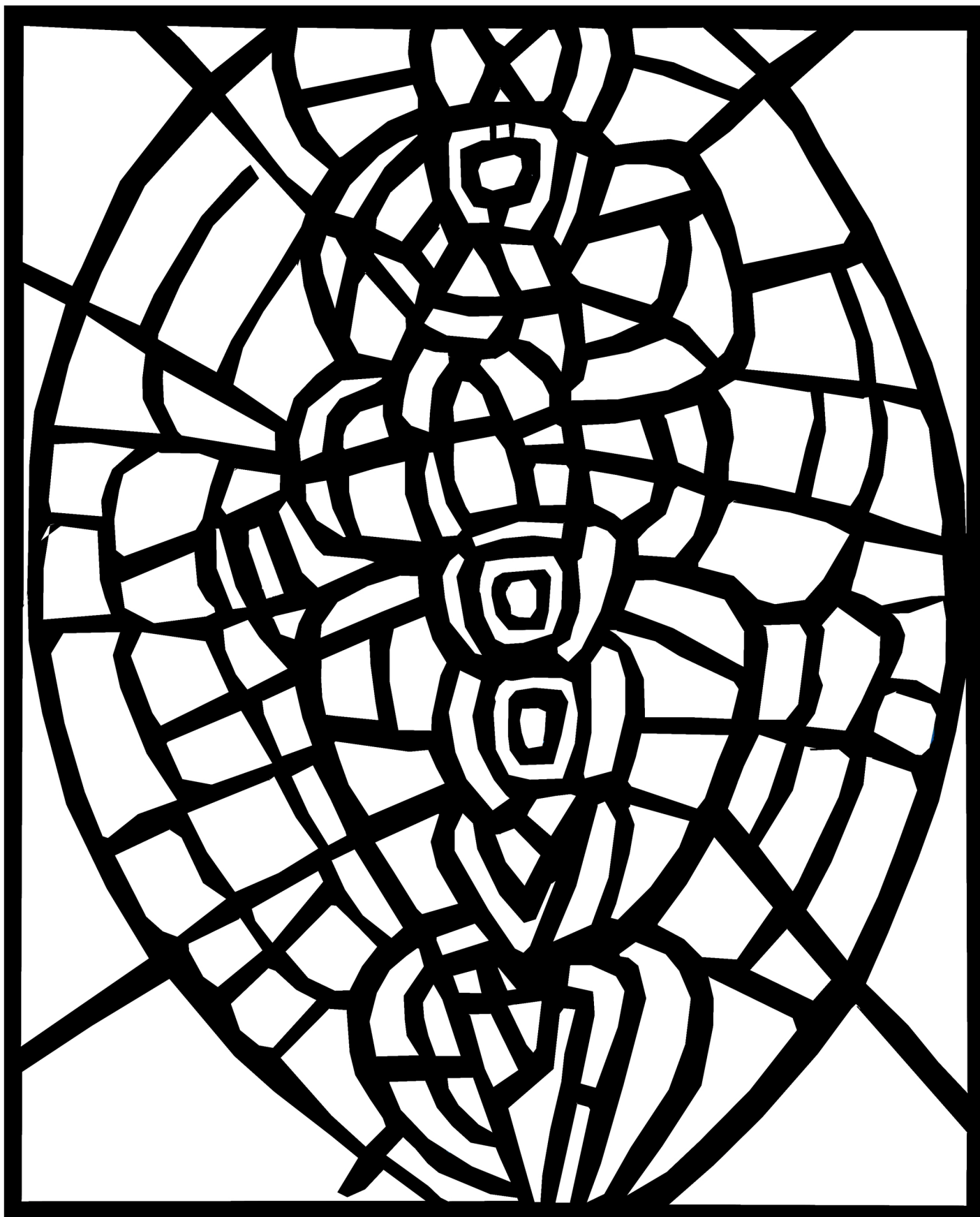
《흰 밤 검은 낮(White Night Dark Day)》

2020.10.29.(목)~2021.2.14.(일)

031-481-7000

예약: 프로필 링크 확인

※ 경기도미술관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준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인두 <만다라>, 1982, 캔버스에 유채
 가나문화재단 소장
 Ha Indoo, Mandala, 1982, oil on canvas
 Courtesy GANA Foundation for Arts & Culture